

구약 각 책의 한국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경진*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에 ‘구약’의 책별 제목 일부를 현 『개역』 성경과 달리 새롭게 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¹⁾ 사실 책의 ‘제목’은 그 책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다. 책명을 통해 내용이 연상되고 책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된다. 성경 각 권의 제목은 창문으로서의 이와 같은 기능을 해 왔다. 가령,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애굽에서 나온 일에 대한 기록’일 것으로 독자들에게 알려 준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 1세기 넘게 애독되어 온 “성경전서”는 1911년에 『성경전서』로 출판된 후 『성경개역』(1938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을 거치면서 번역은 일부 수정되었지만, 각 책에 대한 제목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물론 『신약전서 새번역』(1967년)이나 『공동번역성서』(1977년),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 등은 책명 중 일부를 새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²⁾ 하지만 “성경전서”를 교회 예배용으로 사용해 온 한국 개신교회는 적어도 책명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해 책명으로부터 오는 혼란은 없었다.³⁾

하지만 책명의 ‘통일성’과 더불어 재고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책명으로서의 ‘적합성’(適合性) 여부이다. 불행히도 “성경전서”(이하 『개역』⁴⁾)의 일부 책명

*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본 글은 오랜 기간 동안 애용되어 왔던 구약의 현 책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차세대 젊은 층을 위해 성경을 새로 번역하고 책명도 새로 검토하게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책명을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 2) 가령, 『공동번역 성서』의 “판관기”나 『신약전서 새번역』의 “마태가 전한 복음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역대지상하”와 “에스라기” 등.
- 3) 1911년에 출판된 『성경전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스스기, 룻기, 삼우엘 전, 삼우엘 후, 렬왕기 상, 렬왕기 하, 렬디 상, 렬디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읍아디야,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서반이야, 학개, 세가리야, 말나기.
- 4) 한글로 번역된 공역 성경인 『구역』성경이나 『개역』성경 모두 책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

들은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가령, “신명기”나 “전도서”라는 제목을 처음 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록’⁵⁾과 ‘전도에 관한 책’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을 준비한다는 점을 전제로, 『개역』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책명을 검토해 본 후, 새로운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새 책명을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려고 한다.⁶⁾

2. 『개역』의 책 명칭 고찰

2.1. 중국어성경과 『개역』

2.1.1. 중국어성경의 책별 명칭

1) 중국어성경의 책별 명칭의 특성

『개역』의 구약 39권의 책명은 히브리어성경이나 헬라어성경 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거의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개역』의 책 명칭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어성경의 책명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개역』과 중국어성경의 구약 책명 비교⁷⁾

오경(5)		역사서(12)		시가서(5)		예언서(17)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으므로, 이하에서는 좀 더 익숙한 『개역』으로 “성경전서”를 대체하려 한다. 여기서 『개역』이라 함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을 모두 포함한다.

- 5) 곧 신명기를 神命記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新命記(“새로운 명령에 대한 기록”)로 오해할 수도 있다.
- 6) “성경전서”의 번역사나 국역성경 등에 관한 연구는 꽤 진전이 되었고 참고할 자료도 많이 있다. 하지만 ‘책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사”, 한영제 편, 『한국 성서 찬송가 100년』(서울: 기독교문사, 1987), 9-56; 도한호, “개역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1998), 19-42;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2011), 170-203; 민영진, 『國譯聖書研究』(서울: 성광문화사, 1984);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7) 이곳에 사용된 중국어성경은 『文理本新舊約全書』(1919년)이다. 중국어 성경의 간략한 번역사를 보려면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0), 25-28을 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創世記 出埃及記 利未記 民數記 申命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約書亞記 士師記 路得記 撒母耳記上 撒母耳記下 列王紀上 列王紀下 歷代志上 歷代志下 以斯拉記 尼希米記 以斯帖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約伯記 詩篇 箴言 傳道書 雅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라 말라기	以賽亞書 耶利米書 耶利米哀歌 以西結書 但以理書 何西亞書 約珥書 阿摩司書 俄巴底亞書 約拿書 彌迦書 那鴻書 哈巴谷書 西番雅書 哈該書 撒迦利亞書 瑪拉基書
----------------------------------	----------------------------------	---	--	-----------------------------	------------------------------	--	--

(1) 명명의 원칙

중국어성경의 각 책에 대한 명명(命名) 원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곧, ‘인명’(人名), ‘내용’, ‘문학 유형’에 따라 책명을 정했다. 먼저, ‘인명’에 근거한 책은 모두 24권이다.⁸⁾

<표 2> ‘인명’에 따른 책명

중국어 책명(개역성경의 약어)	권수
約書亞記(수), 路得記(룻), 撒母耳記上(삼상), 撒母耳記下(삼하), 以斯拉記(스), 尼希米記(느), 以斯帖記(에), 約伯記(욥), 以賽亞書(사), 耶利米書(렘), 以西結書(겔), 但以理書(단), 何西亞書(호), 約珥書(욘), 阿摩司書(암), 俄巴底亞書(옵), 約拿書(욘), 彌迦書(미), 那鴻書(나), 哈巴谷書(합), 西番雅書(슘), 哈該書(학), 撒迦利亞書(슘), 瑪拉基書(말)	24권

이 책들은 해당 인물이 책의 내용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적합한 제목으로 생각된다. 가령, “여호수아기”의 경우 16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장마다 언급되고 있다. 인명에 근거한 이 책명들은 히브리어성경의 책명과 일치한다.

둘째는 ‘내용’에 근거해 책명을 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책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14권이다.

<표 3> ‘내용’에 따른 책명

8) “레위기”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인명’에 따른 제목으로 볼 수 없다.

중국어 책명(개역성경의 약어)	권수
創世記(창), 出埃及記(출), 利未記(레), 民數記(민), 申命記(신), 士師記(삿), 列王紀上(왕상), 列王紀下(왕하), 歷代志上(대상), 歷代志下(대하), 箴言(잠), 傳道書(전), 雅歌(아), 耶利米哀歌(애)	14권

내용에 근거해 명명되었고 한자는 뜻글자이므로, 이 책명들로부터 내용이 쉽게 연상된다. 가령, “애가”(哀歌)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므로 내용과 잘 들어맞는다. ‘내용’에 맞춰 명명된 책들은 히브리어성경의 책명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⁹⁾ 대부분은 헬라어성경이나 라틴어성경 등 역본들의 책명을 참고하였다.¹⁰⁾ 반면, “신명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전승의 책명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한편, “시편”(詩篇)의 경우는 내용이나 인명이 아니라 ‘문학 유형’과 ‘편집 형태’에 따라 칭해졌다.

<표 4> ‘문학 유형’에 따른 책명

중국어 책명	권수
詩篇(시)	1권

(2) 끝말¹¹⁾

중국어성경의 다른 특성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책명이 주로 ‘~書’(서)나 ‘~記’(기)로 끝나지만, ‘~紀’(기)나 ‘~志’(지), 혹은 ‘~가’(歌)와 ‘~篇’(편), 혹은 ‘~언’(言)로 끝나는 책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끝말에 따른 구분

끝말	책명
~書(서) (17권)	傳道書(전), 以賽亞書(사), 耶利米書(렘), 以西結書(겔), 以理書(단), 何西亞書(호), 約珥書(욘), 阿摩司書(암), 俄巴底亞書(옵), 約拿書(욘), 彌迦書(미), 那鴻書(나), 哈巴谷書(합), 西番雅書(슘), 哈該書(학), 撒迦利亞書(슌), 瑪拉基書(말)
~記(기)	創世記(창), 出埃及記(출), 利未記(레), 民數記(민), 申命記(신), 約書亞

9) 가령, “מלכים”(왕상하)이나 “שְׁפָרַיִם”(아) 등.

10) 가령, “Γένεσις”(창), “Λευιτικόν”(레) 등.

11) 여기서 ‘끝말’이라 함은 각 책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요소를 뜻한다. 가령, “창세기”에서는 ‘기’(記)를 “전도서”에서는 ‘서’(書)를 가리킨다.

(14권)	記(수), 士師記(삿), 路得記(룻), 撒母耳記上(삼상), 撒母耳記下(삼하), 以斯拉記(스), 尼希米記(느), 以斯帖記(에), 約佰記(욥)
~紀(기) (2권)	列王紀上(왕상), 列王紀下(왕하)
~志(지) (2권)	歷代志上(대상), 歷代志下(대하)
~가(歌) (2권)	雅歌(아), 耶利米哀歌(애)
~편(篇) (1권)	詩篇(시)
~언(言) (1권)	箴言(잠)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언서에 해당되는 책들은 ‘~書’(서)를, 오경에 해당되는 책들은 주로 ‘~記’(기)를 끝말로 취하고 있다. 반면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들은 주로 ‘~記’(기)로 끝나지만, ‘~紀’(기) 혹은 ‘~志’(지)를 끝말로 취하는 책들도 있다. “시편”은 책 전체가 시(詩)이므로 시문을 셀 때 쓰는 끝말인 ‘~편’(篇)을 붙였다. 또한 “아가”와 “애가”는 책의 성격이 노래임을 강조해서 ‘~가’(歌)를, “잠언”은 훈계하는 말들을 모아 놓은 책에 붙이는 끝말인 ‘~언’(言)을 붙였다.

2) 분석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중국어성경의 책명은 ‘인명’, ‘내용’, ‘문학 유형’에 근거한 것이며, 예언서는 끝말로 ‘~서’(書)를 사용했고 나머지 책들은 주로 ‘~기’(記)를 사용했지만, 책의 성격과 편집 형태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어성경의 책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성경(BHS) 및 헬라어성경(LXX)과 라틴어성경(VUL)의 책명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¹²⁾

다른 성경들과 책명을 공유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제목과 내용 사이의 ‘적합성’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개역』은 중국어성경의 책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역』의 책명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전에 중국어성경의 책명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명명의 원칙 문제

12)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2.2.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인명’에 근거한 제목은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여호수아기”나 “욥기”처럼 책 전체가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책 내용 일부에만 관계된 인물이 책 전체의 제목이 된 경우도 있다. 가령, “에스라기”의 경우 전체 열 장 중 앞의 여섯 장(11-6장)은 에스라와 전적으로 무관한 성전 재건 이야기이다. “사무엘하”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된다. “사무엘하” 전체에서 사무엘은 정작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제목과 내용 사이에 부정합성이 발견된다. 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요 내용이 ‘모세’의 활동임을 고려해 볼 때, 모세가 이 책들의 제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명’ 중심의 책명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함을 알 수 있다.¹³⁾

‘내용’에 따른 책명은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가령, “열왕기(列王紀)상하”는 왕을 열거했지만 ‘단순한 기록(記錄)’이 아니라 ‘왕실의 기록(紀錄)’임을 강조하는 단어를 선택했다. 특히 “신명기”(申命記)는 구약의 책들 중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제목 중 하나이다. 이 책을, 히브리어성경은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인 ‘엘레 하드바림’(אלה הדברים)이라고 부르며, 헬라어성경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온’(Δευτερονόμιον)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세 번에 걸쳐 기존의 율법을 반복해서 설교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命)을 거듭한(申)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담은 이 책명은 내용에 제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명으로부터 책의 내용이 잘 연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레위기”의 경우 이 책명으로부터는 “레위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 “레위기”에는 이 단어가 단 네 번만 등장할 뿐이며(레 25:32, 33), 오히려 ‘거룩’에 관한 주제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이다. 헛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道)을 전(傳)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제목과 내용이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명은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책명 자체로부터 이 내용을 연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사기”는 히브리어성경과 헬라어성경의 책명을 이어받아¹⁴⁾ ‘재판관’이라는 뜻의 한자 “사사기”(士師記)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된 사사들의 행적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재판관들로 칭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출애굽기”는 내용이 선명히 연상되는 책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역본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목과 연속선상에 있지

13) 『성경전서』(1911년)에는 “창세기”에 “모세의 첫재경”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4) 히브리어성경의 제목 “쇼프탐”(שופטים)과 헬라어성경의 제목 Κριτάις는 모두 ‘재판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않다. 가령, 헬라어성경이나(Ἔξοδος), 라틴어성경(Exodus)은 “길에서(οδου) 나온(εξ) 이야기”라고 칭하여 ‘애굽’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가톨릭, 2005년)은 “탈출기”라는 책명을 택하였다. “시편” 역시 마찬가지이다. 히브리어성경은 이 책을 ‘찬양’을 뜻하는 ‘트힐림’(תְּהִלִּים)으로, 헬라어성경은 ‘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뜻의 ‘프살모이’(Ψαλμοί)라고 한다. 곧 이 책의 내용이나 활용에 맞추어 명명했지만, 중국어성경은 문학 유형과 편집 형태를 중시하여 책명을 정함으로써 다른 성경들과의 책명의 연속성이 깨졌다.

(2) 끝말 문제

중국어성경은 끝말로 예언서에는 ‘~서’(書), 오경과 역사서에는 주로 ‘~기’(記)를, 그리고 그 밖의 끝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끝말은 각 책의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여 세심히 선택되었다. 가령 역사서에 포함되는 책들은 ‘~記’나 ‘~紀’, 혹은 ‘~志’로 끝난다. 즉 ‘~記’가 과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인 반면, ‘~紀’는 역사적 인물의 개인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전체(紀傳體) 기술임을 부각시킨 것이며, ‘~志’는 기전체 역사 서술이지만 특정 사건의 변천과정과 연혁을 기술했음을 뜻하는 용어이다.¹⁵⁾

하지만 일부 원칙이 이해되지 않는 책명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책들을 끝말로 ‘~서’를 택했는지 원칙을 알기가 쉽지 않다.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을 끝말로 ‘~서’를 택한 것 같지만, 예언서가 아닌 “전도서” 역시 같은 끝말로 끝나고 있다. 또한 ‘~서’로 끝나는 책들은 주로 ‘인명’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인명’ 책명에 ‘~기’가 끝말로 붙은 책들도 많기 때문이다(가령, “여호수아기”, “룻기”, “사무엘기”,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욥기”). 만일 오경과 역사서는 ‘~기’를 위주로 붙이고, 예언서는 ‘~서’를 끝말로 붙이는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가서의 책들의 경우는 “욥서”와 “전도서”, 아니면 “욥기”와 “전도기”로 칭했으면 더 통일성이 있었을 것 같다.¹⁶⁾

15) 참조, 네이버 한자사전(hanja.naver.com).

16) 참조, 민경진, “알고 싶습니다”, 『성서한국』 37 (1991), 30-34. 민경진은 책명의 끝말 ‘~기’와 ‘~서’의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곧 발간되는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에서는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권은 ‘~기’로, 나머지 예언서는 ‘~서’를 붙여 사람이름과 책명을 구분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어성경의 책명과 동일하게 된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어 아쉽다.

한편 “시편”의 경우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편”(詩篇)이라는 책명은 시들을 따로 분류해 모아 놓았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자칫 성도들에게 구약성경 중—다른 책들과 달리—“시편”만 시로 된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¹⁷⁾

3) 요약

한글성경 책명의 모태가 되는 중국어성경의 책명은 일정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인명’, ‘내용’에 근거해 대부분의 책명이 정해졌다. 이것은 히브리어성경과 헬라이어성경의 책명 전승을 보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끝말은 ‘~서’와 ‘~기’로 가급적 통일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끝말도 여럿 있다.

한편, 일부 책명은 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목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컨대 중국어성경은 기존 책명 전승을 존중하면서도 대안적 책명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2.1.2. 『개역』의 책명 재고를 위한 원칙

『개역』은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전폭적으로 수용했기에 중국어성경의 책명이 지니는 한계가 『개역』의 책명에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도 있어 제목이 지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일부 책명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들을 앞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책명 대원칙

구약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집필한 책에 제목을 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히브리어성경이나 그 이후의 역본들은 나름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목을 달게 되었다. 이 원칙은 ‘내용’을 토대로 하거나 ‘인명’을 토대로 한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히브리어성경은 오경의 경우 각 권의 책 서두에 나오는 단어(들)를 제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오경 이외의 책들은 모두 ‘내용’을 토대로 하거나 중심 ‘인물’을 그 제목으로 택했다. 헬라이어성경이나 라틴어성경과 현

17) 구약성경 중 시가서(욥, 잠, 전, 아)와 예언서 대부분의 책도 시(詩)로 되어 있다.

대어 역본들 역시 이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개역』도 “시편”을 제외하면 ‘내용’과 ‘인명’을 토대로 책명이 정해졌기에 이 성경들과 책명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책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유된 이 원칙은 새로운 성경 번역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문학 유형’에 따라 칭해진 제목인 “시편”은 수정이 요구된다.

다른 성경들과의 책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이것은 책명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곧 ‘통일성’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적합성’ 여부이다. 따라서 책명과 내용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새로운 성경 번역은 ‘내용’과 ‘인명’에 근거하여 책명을 정해왔던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책명과 내용의 부정합성이 발견된다면 더 나은 명칭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2) 중국어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책명 중 수정해야 할 책들

『개역』은 중국어성경의 “歷代志” 대신 “역대”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제목을 정할 때 뜻글자인 한자를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관습 덕분에 번역으로 인한 혼란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몇 권의 책명은 한자에 익숙지 않은 세대에게는 그 뜻이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책명은 수정을 고려해 볼 만하다. 가령, “신명기”가 그렇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申命記”를 “神命記”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사사기”에서 ‘사사’(士師)라는 말은 예전에 중국에서 재판관을 칭할 때 쓰던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없다. “잠언”(箴言)은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일상생활에서는 ‘훈언’(訓言)이나 ‘격언’ 등의 단어가 ‘잠언’보다 더 쉽게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전도서”나 “아가” 등의 책명도 좀 더 쉬운 책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 끝말 문제

중국어성경은 책명 끝말로 ‘~書’(서)나 ‘~記’(기)를 주로 택했고, 다른 끝말들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차용한 『개역』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끝말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표 6> 끝말 기준 『개역』의 책명

끝말	책명
~서 (1권)	전도서
~기 (10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욥기
~가 (2권)	아가, 예레미야애가
~인 (1권)	잠언
~편 (1권)	시편
없음 (24권)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개역』은 책명의 끝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 24권이나 되는 책이 책명의 끝말이 없다. 특히 끝말 ‘~서’가 그렇다. 중국어성경에서는 17권이 ‘~서’를 끝말로 가졌지만 『개역』은 “전도서” 한 권뿐이다. “전도서”에서 ‘~서’를 제외하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책만 예외로 둔 것 같다. 하지만 책명을 끝말 없이 사용한 특별한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인명’(人名)에 근거한 책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가령, 대상하). 반면, 인명에 근거한 책들 중 끝말로 ‘~기’를 붙인 책들도 있다(룻기, 욥기). 책을 명명하는 데 확고부동한 원칙이 분명치 않아 책명을 부를 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가령, “여호수아”의 경우 “여호수아서”라고 해야 할지, 중국어성경이나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처럼 “여호수아기”로 칭해야 할지 혼란스럽다.¹⁸⁾

한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어성경은 ‘~記’와 ‘~紀’, ‘~志’를 분명한 원칙에 의거해 끝말로 사용했지만, 앞의 두 개는 우리말로 공히 ‘~기’로 번역되어 이 구분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구약의 핵심이요 출발인 오경의 각 권은 끝말로 ‘~경’을, 역사서는 ‘~기’를, 예언서는 ‘~서’를 붙이는 것도 고려해 보직하다. 시가서는 성격이 다양하므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18)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은 모든 책명의 끝말을 중국어성경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4) 상하(上下)권 문제

구약의 일부 책들은 ‘상권’(上卷)과 ‘하권’(下卷)으로 분류되어 있다(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히브리어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이 책들을 헬라어성경과 라틴어성경이 두 권으로 분류했는데, 『개역』은 후자의 책명 전승을 이어 받은 것이다. 반면, 신약성경은 ‘전서’(前書)와 ‘후서’(後書) 구분법을 채택하고 있어(고전후, 살전후, 딤편후, 벤틘후) 양자 간 통일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약의 책들은 본래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분량이 많아 두 권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에서 신약의 책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곧 신약의 책들은 본래 한 권으로 형성된 책이 아니고, 각각 시차를 두고 집필되었기에 ‘전후서’라는 명칭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히브리어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느헤미야”가 현재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으로 나뉘어져 개별 책명을 지니게 된 것은 유감이다. 두 권의 책명은 이 두 권이 본래 한 권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¹⁹⁾ 헬라어성경과 라틴어성경도 “에스라기 I”과 “에스라기 II”로 칭하고 있으므로, “에스라”는 “에스라기(상)”으로, “느헤미야”는 “에스라기(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5) 기타

성경 전체가 100년 전 처음으로 우리말로 출간된 이후 한국교회는 책명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책명을 수정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기존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차세대에도 당연히 읽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과 더불어, 필요시, 책명 수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최소한의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기존의 책명과 병행 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예언서의 책들은 예언자의 이름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우므로 독자들을 배려하여 ‘부제’를 다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2.2. 고찰

19)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형성되었는지, 두 권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두고 논의 끝에 학계에서는 본래 한 권으로 형성되었다고 결론지어 가고 있다. 참조, Mark J. Boda and Paul L. Redditt, eds., *Unity and Disunity in Ezra-Nehemiah: Redaction, Rhetoric, and Reader* (Sheffield: SPP, 2008).

이제 위에서 제시한 『개역』의 “책명재고원칙”을 기억하며 혹 재고해 볼 책명이 없는지 고찰해 보자.

히브리어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책명이 ‘인명’이나 ‘내용’ 근거해 있으므로, 먼저 ‘인명’에 근거한 책명인 24권을 고찰한 후, ‘내용’에 근거한 15권의 책명을 고찰하려 한다. 중국어성경과 『개역』에서 ‘문학 유형’에 따라 분류된 “시편”은 위의 “책명재고원칙”에 의해 후자에 포함된다.

2.2.1. ‘인명’에 근거한 책들

1) 유지할 책명들

『개역』 중 ‘인명’으로 된 책은 24권이다. 이 중 16권은 ‘예언서’이고, 나머지 8권은 ‘역사서’나 ‘시가서’에 포함돼 있다. 예언서에 속한 책들은 해당 예언자의 이름을 책명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이 이와 같은 방식의 책명을 택하고 있다.

<표 7> 예언서에 속한 책들의 책명 비교 (16권)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가톨릭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이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이사야	以賽亞書	이사야서	ישעיה	Ῥσαίας	Isaias	Isaiah
예레미야	耶利米書	예레미야서	ירמיה	Ῥερεμίας	Jieremias	Jeremiah
에스겔	以西結書	에제키엘서	יחזקאל	Ῥεζεκιήλ	Hiezechiel	Ezekiel
다니엘	但以理書	다니엘서	דניאל	Δανιήλ	Daniel	Daniel
호세아	何西亞書	호세아서	הושע	Ῥσηέ	Osee	Hosea
요엘	約珥書	요엘서	יואל	Ῥωήλ	Iohel	Joel
아모스	阿摩司書	아모스서	עמוס	Ῥμώς	Amos	Amos
오바다	俄巴底亞書	오바드야서	עבדיה	Ῥβδιού	Abdias	Obadiah
요나	約拿書	요나서	יונה	Ῥωνάς	Jonas	Jonah
미가	彌迦書	미카서	מיכה	Μιχαίας	Micha	Micah
나훔	那鴻書	나훔서	נחום	Ναούμ	Naum	Nahum
하박국	哈巴谷書	하박국서	חבקוק	Ῥβακούμ	Abacuc	Habakkuk
스바냐	西番雅書	스바니아서	צפניה	Σοφονίας	Sofonias	Zephaniah
학개	哈該書	하가이서	חגי	Ῥγγαίος	Aggeus	Haggai
스가랴	撒迦利亞書	즈카르야서	זכריה	Ζαχαρίας	Zacharias	Zechariah
말라기	瑪拉基書	말라키서	מלאכי	Μαλαχίας	Malachi	Malachi

이처럼 성경들 간에 책명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말라기”의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말라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르아키”(מַלְאָכִי)가 구약성경에서는 말라기 1:1을 제외하면 모두 보통명사인 ‘나의 사자/사신’(말 3:1 참조)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²⁰⁾ 따라서 이곳에서만 굳이 고유명사로 읽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덧붙여 ‘나의 사자’라는 뜻의 이름은 자녀에게 통상 지어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²¹⁾ 하지만 드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령, 예언자 학개의 경우도 이 이름을 지닌 다른 인물이 구약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모든 전승이 말라기를 고유명사로 보고 있다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말라기”를 보통명사로 보아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와 이 책명에 대한 좀 더 타당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 책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예언서의 각 책명에 대해 위에서 소개된 성경들은 예언자들의 히브리어 발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가령, 이사야의 경우 히브리어의 <여좌야>(יְרֵעָיָה)가 <예사리아스>(Ἰσαΐας), <이사리아스>(Isaias) 등으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어 인명에 대한 각 언어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개역』보다는 『성경』(가톨릭, 2005)의 발음이 원음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개역』의 책명에 대한 획기적인 수정을 시도한다면 『성경』의 발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 간 번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원칙을 적용할 때 성경 안의 무수히 많은 고유명사 역시 바꾸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인명’으로 된 24권의 책명 중 나머지 8권은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이다. 이 중 “여호수아”, “룻기”, “에스더”, “욥기”는 각 인물들이 책의 중심 내용을 이끌고 있고, 다른 성경들도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책명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명의 수정을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 8> “여호수아”, “룻기”, “에스더”, “욥기”의 책명 비교(4권)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가톨릭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이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여호수아	約書亞記	여호수아기	יְהוֹשֻׁעַ	Ἰησοῦς	Iosue	Joshua

20) 가령, 창 28:12; 32:2; 출 23:23; 삿 11:13; 삼상 19:20; 왕하 1:3; 시 78:49; 잠 16:14; 사 14:32 등.

21) 참조, Paul L. Redditt, *Haggai, Zechariah, Malachi*, NCBC (Grand Rapids: Edmans, 1995), 151.

룻기	路得記	룻기	רות	Ρουθ	Ruth	Ruth
에스더	以斯帖記	에스테르기	אסתר	Ἑσθήρ	Hester	Esther
욥기	約伯記	욥기	איוב	Ἰώβ	Iob	Job

요컨대 위의 <표 7>에 언급된 16권과 <표 8>에 언급된 4권의 책명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2) 재고해 볼 책명들

‘인명’으로 된 책명 24권 중 “사무엘상”, “사무엘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들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표 9> “사무엘상”, “사무엘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명 비교 (4권)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가톨릭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이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사무엘상	撒母耳記上	사무엘기상	שמואל	Βασιλειῶν A	Samuel I	Samuel I
사무엘하	撒母耳記下	사무엘기하		Βασιλειῶν B	Samuel II	Samuel II
에스라	以斯拉記	에즈라기	עזרא נחמיה	Ἑσδρας B	Ezras I	Ezra
느헤미야	尼希米記	느헤미야기			Ezras II	Nehemiah

이런 차이는 히브리어성경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 한 권으로 되어 있기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헬라이어성경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인명’이 아니라, ‘내용’에 근거해 “왕국기”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역』의 경우 위의 네 권의 책을 모두 ‘인명’에 근거해 책명을 정했지만, 원칙이 모호하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지만 두 권으로 나뉘어졌음을 표시하려고 했다면, 옹당 라틴어성경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대신 “에스라상”과 “에스라하”로 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가 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제목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사무엘하”의 책명은 중심인물인 “다윗”으로 칭했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

“다윗”이라는 책명을 새로 제안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

로 라틴어성경처럼 “에스라”를 “에스라상”으로, “느헤미야”를 “에스라하”로 바꾸는 것이 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느헤미야”라는 책명은 중심인물과의 관계로 볼 때 변경할 수 없다면, “사무엘하”의 책명은 사무엘이 이 책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책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헬라이어성경처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왕국기 1”, “왕국기 2”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 경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자동적으로 “왕국기 3”과 “왕국기 4”가 된다.

<표 10> “사무엘상”, “사무엘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명 제안

현재	제안 1	제안 2
사무엘상	사무엘상	왕국기 1
사무엘하	사무엘하	왕국기 2
에스라	에스라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하	느헤미야

2.2.2. ‘내용’에 근거한 책들

『개역』 중 ‘내용’에 근거한 책명은 14권이다. “시편”은 ‘문학 유형’에 근거한 책이지만, 위의 “책명재고원칙”(2.1.2)에 의해 시편을 ‘내용’에 근거한 책명으로 포함시키려 한다. 따라서 여기서 재고해 볼 15권에 해당하는 책들은 오경(창, 출, 레, 민, 신)과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애가”이다. 아래에서는 오경에 해당하는 다섯 권의 책명을 먼저 다루고, 이어 오경 이외의 책명을 다루려고 한다.

1) 오경의 책명

『개역』의 첫 다섯 권의 책명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헬라이어성경이나 라틴어성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히브리어성경은 각 책의 서두에 나오는 단어를 책명으로 택하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 책명에 있어 통일성이 있다. 다만 “신명기”의 경우는 예외이다. 헬라이어성경과 라틴어성경은 ‘두 번째 율법’을 뜻하는 용어를 선택했지만, “신명기”(申命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둬서 기록한 것’이라는 독창적인 명칭을 채택했다.

이제 책명의 요건 중 ‘통일성’과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오경의 책명을 재검토해 보자. 우선 오경의 책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오경의 책명 비교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가톨릭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이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창세기	創世記	창세기	בראשית	Γένεσις	Genesis	Genesis
출애굽기	出埃及記	탈출기	עֲמוֹת	Ἔξοδος	Exodus	Exodus
레위기	利未記	레위기	ויקרא	Λευιτικὸν	Leviticus	Leviticus
민수기	民數記	민수기	במדבר	Ἀριθμοί	Numeri	Numbers
신명기	申命記	신명기	הדברים	Δευτερονόμιον	Deuteronomium	Deuteronomy

히브리어성경의 책명들은 각 책의 서두에 나오는 단어를 토대로 했다. 곧 “브레쉬트”(בראשית), “쉬모트”(עֲמוֹת), “와이크라”(ויקרא), “브밧바르”(במדבר), “하드바림”(הדברים)인데, 각각 ‘한 처음에’, ‘이름들’, ‘그가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이라는 뜻이다. 이 제목이 각 책들의 내용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책명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목들이 새로운 번역 성경의 책명을 재고하는 데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히브리어성경 이외의 성경들과 가급적 책명을 통일시키되, 내용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① 우선 “창세기”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책명으로 ‘기원’이나 ‘시작’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창세기” 역시 ‘세상/인간(世)의 시작(創)’을 의미하므로 통일성이 있으며, 이 책명은 ‘세상을 시작하신 이야기’(창 1-11장)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시작하신 이야기’(12-50장)를 아우를 수 있으므로 굳이 새 제목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② “출애굽기”는 내용이 잘 연상되는 책명이다. 곧 ‘애굽에서의 탈출에 대한 기록’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성경』은 “탈출기”를 책명으로 택했다. 헬라이어성경의 책명인 “엑소도스”(Ἔξοδος)는 ‘길(ὁδός)에서 벗어남(ἐκ)’이라는 뜻으로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바티칸 사본과는 달리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책명으로 “엑소도스 애굽토스”(Ἔξοδος Αἰγύπτου)라 하여 ‘애굽’을 제목에 포함시키고 있다.²²⁾ 따

22) 이 책명은 출애굽기 19:1의 “τῆς ἐξόδου τῶν υἱῶν Ἰσραὴλ ἐκ γῆς Αἰγύπτου”(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고,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서울: 바오로딸, 2009), 75.

라서 “출애굽기”라는 책명은 생똥맞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내용이 좀 더 명확히 연상된다는 점에서 “탈출기”보다는 나아 보인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애굽’을 ‘이집트’로 수정해야 하므로 “출이집트기”로 하면 좋을 듯하다.

③ 책명 “레위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책명 “Leviticus”는 ‘레위 족속에 관련된’이라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는 제사장 지침서의 성격을 지닌 이 책에 대한 책명으로 수용할 만하다. 하지만 『개역』의 “레위기”라는 책명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레위라는 인물에 관한 기록’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또한 “레위기” 안에 제사장들의 규범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레 6:8-7:21; 10:8-15; 16장; 21장 등). 하지만 “레위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예배법과 정결법 등에 대한 규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 성직자 그룹을 연상시킴으로써 평신도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책으로 생각하게 되는 책명은 수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지하는 대로, “레위기”의 핵심 어휘는 “거룩”이다(가령, 11:44; 19:2).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은 후 형식적 관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 성민(聖民)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면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거룩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의 주요 내용이다.²³⁾ 따라서 “거룩기”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에도 부합한 제목으로 생각된다.

④ 책명 “민수기”에 대해 번역본들은 대부분 ‘수’(數)를 의미하는 제목을 택하고 있다(가령, “Numbers”). 하지만 『개역』의 경우 수를 세되, ‘백성’들의 수를 센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民)을 책명에 추가했다. 이것은 단순히 ‘출(出)기’로 하지 않고 “출애굽기”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책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 책에 12지파의 인구 조사(민 1장; 26장)와 레위지파 인구 조사(3:14-39; 26:57-62)가 실려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도 7장에 80절이 넘게 계수되고 있다. 곧 ‘백성’만이 아니라 ‘헌물’의 수도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역본들은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수기”(數記; Numeri)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민수기”의 중심 내용을 ‘계수’(計數)에 두는 것도 사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계수한 내용은 전체 서른여섯 장 중 네 장(1, 2, 7, 26 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23)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는 거룩에 이르는 길로 “예배”를 제시하는 전반부(1-16장)와 “윤리적 삶”을 제시하는 후반부(17-27장)로 나뉜다.

된 이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곧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룩에 이르는 길을 배운 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겪게 될 신앙훈련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어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제목인 “광야에서”(במדבר)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목이다. 이 제목을 차용해서 차세대를 위한 성경이 출판된다면 “광야기” 혹은 “광야훈련기”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이와 같이 책명을 바꾼다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에 대한 논리적 흐름—“출이집트기”, “거룩기”, “광야훈련기”—도 잘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이가 모세이므로, ‘인명’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모세기(상)”, “레위기”를 “모세기(중)”, “민수기”를 “모세기(하)”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⑤ “신명기”의 역본들 제목은 칠십인경이 신명기 17:18의 “미쉬네 하토라”(משנה התורה)를 “토 듀테로노미온”(τὸ δευτερονόμιον)으로 옮긴 데서 기인한다. 미쉬나 하토라는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뜻이므로 제대로 번역했다면 안티그라폰(ἀντίγραφον) 혹은 엑크도시스(ἔκδοσις)로 옮겼어야 했다.²⁴⁾ 칠십인경은 미쉬나 하토라를 모세가 시내 산에서 전해 준 첫 번째 율법에 이어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듀테로노미온(the second law)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전해 준 율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새롭게 전해 준 두 번째 율법도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일부 유대인들처럼 “미쉬나 하토라”라고 부르거나, “듀테로노미온”으로 칭하는 것은 그다지 적합한 제목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命)을 거둬서(申)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지닌 “신명기”라는 제목은 책의 내용과 상당히 근접하지만, ‘신’(申)이라는 한자에 “거둬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많은 이들은 “신명기”를 “神命記”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제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다시 듣는 토라”²⁵⁾도 고려해 봄직하지만 책명으로는 다소 긴 느낌이 든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자 다음에 한자를 포함해서 “신(申)명기”로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세기(상중하)”로 채택한다면 ‘신명기’를 ‘모세설교’로 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오경의 책명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 성경에 근거해 “오경”,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하거나,

24)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79.

25) 참고,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한다. 어느 경우든지 구약의 첫 다섯 권은 뒤의 책들이 ‘~서’로 칭해지는 것과는 달리 ‘오경’으로 통상 불리고 있다. 이것은 오경의 비중을 다른 책들보다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구분을 존중한다면, 오경의 책들의 끝말로 ‘~경’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오경의 책명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오경의 책명 제안

현재	제안 1	제안 2	제안 3
창세기	창세기	창세경	창세기
출애굽기	출이집트기	출이집트경	모세기(상)
레위기	거룩기	거룩경	모세기(중)
민수기	광야(훈련)기	광야(훈련)경	모세기(하)
신명기	신(申)명기	신(申)명경	모세설교

2) 오경 이외의 책들의 책명

‘내용’에 근거한 책명들 중 오경의 책들을 제외하면 모두 10권(삿, 왕상하, 대상하, 시, 잠, 전, 아, 애)인데, 이 책들의 책명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3> 내용에 근거한 책들의 책명 비교 (10권)

개역 성경	중국어 성경	가톨릭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사사기	士師記	판관기	שפטים	Κριταί	Iudicum	Judges
열왕기상	列王紀上	열왕기상	מלכים	Βασιλειῶν Γ	Regum I	Kings I
열왕기하	列王紀下	열왕기하		Βασιλειῶν Δ	Regum II	Kings II
역대상	歷代志上	역대기상	דברי הימים	Παραλειπομένων Α	Paralipomenon I	Chronicles I
역대하	歷代志下	역대기하		Παραλειπομένων Β	Paralipomenon II	Chronicles II
시편	詩篇	시편	תהלים	Ψαλμοί	Psalmi	Psalms
잠언	箴言	잠언	משלי	Παροιμιαί	Proverbia	Proverbs
전도서	傳道書	코헬렛	קהלת	Ἐκκλησιαστής	Ecclesiastes	Ecclesiastes
아가	雅歌	아가	שיר השירים	ᾠσμα ᾠμάτων	Canticum Canticorum	Song of Solomons
예레미야애가	耶利米哀歌	애가	איכה	Θρήνοι	Lamentationes	Lamentations

이 책들의 책명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① 먼저 “사사기”는 수정을 요하는 책명이다. ‘사사’(士師)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한 것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일반화 된 단어가 됐지만 여전히 신앙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이른 바 ‘게토’(ghetto)화 된 단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우리말은 ‘(재)판관’이므로, 『성경』은 아예 “판관기”로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기타 역본들(Kριταί, Iudicum, Judges)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책명이다.

하지만 사사를 ‘판관’으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사기”를 읽어 보면, 사사들의 주요 임무나 행적이 재판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사사 중 드보라만 유일하게 ‘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언급돼 있다(삿 4:4-5). 오히려 사사들의 주된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이었다(2:16; 3:9, 15, 31; 6:14, 36 등). 사사들을 ‘재판’ 업무와 연관시킨 것은 히브리어성경에서의 제목 “쇼프팀”(שופטים) 때문이다. 곧 이 단어는 동사 “사파트”(שפט)의 복수명사형인데, 이 동사의 의미를 ‘재판하다’(to judge)로 해석한 데서 연유한다. 하지만 이 동사는 ‘통치하다’(to govern)는 뜻도 응당 포함하고 있으므로 ‘쇼프팀’은 ‘재판관’ 뿐 아니라 ‘통치자’의 의미도 지닌다.²⁶⁾ ‘쇼프팀’이 이 두 의미를 다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책명 “사사기”를 대체할 만하지는 않다. 사사들의 행적이 ‘재판’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인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8:22-23).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내용’을 중시하여 “영웅기” 혹은 “영도자들” 등의 제목이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② “열왕기”는 중국어성경에서의 “列王紀”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²⁷⁾ 눈여겨 볼 점은 ‘기록하다’는 뜻의 한자 ‘記’를 쓰지 않고, 기전체(紀傳體) 역사에서 제왕의 사적을 적은 글을 뜻하는 ‘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列王紀”란 ‘왕들의 사적을 차례대로 적은 글’이라는 뜻이므로 내용에 아주 적합한 제목이다. 하지만 이것의 한글 번역인 “열왕기”로부터 이런 의미를 쉽게 간파하기는 어렵다. ‘紀’ 자를 대부분 ‘記’로 생각하고 있고, “열왕”(列王)이라는 한자어도 새로운 세대에게는 의미를 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列王紀”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 새로운 번역 성경에서는 “왕조실록상”과

26) 한편 카르타고의 시민 통치자들이 “sufetes”로 불렸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쇼프팀”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참조, 윌리엄 S. 라술 외, 『구약개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317, 각주 2.

27) 다른 성경들도 위의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왕들”이나 “왕국기” 등의 의미를 담은 책명을 택하고 있다.

“왕조실록하”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열왕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한자를 병기해 두었으면 한다. 만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왕국기1”과 “왕국기2”로 바꾼다면 헬라어성경처럼 “열왕기상”을 “왕국기3”으로, “열왕기하”를 “왕국기4”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③ “역대상하”를 히브리어성경은 “디브레 하 야뫼”, 곧 “날마다의 사건(행적)들”이라고 부른다. 아담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까지 인간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제목이다. 영어성경도 이런 의미를 담아 “Chronicles”(연대기)로 부른다. 반면 헬라어성경은 “생략된 것들의 (책들)”이라는 뜻을 지닌 “파탈레이포메논”이라고 칭했고, 라틴어성경도 이를 채택했다.²⁸⁾ 이 제목은 이미 집필되어 있었던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빠뜨린 부분들을 “역대상하”가 보완해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에 근거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제목은 아니다.

『개역』의 “역대상하”는 통상 “역대기”라고도 불린다. 역대기(歷代記)라는 말이 “대대로 이어 내려온 지난 세월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므로 히브리어성경의 제목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어성경은 “역대기” 대신 “歷代志”로 쓰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志’는 특정 사건의 변천과 연혁을 강조한 기전체 역사서임을 드러내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역시 이 점을 중시해서 중국어성경과 같은 제목을 택했다. 새로운 번역 성경도 이와 같은 이유와 “뜻으로 본 역사”²⁹⁾라는 의미를 더해 “역대지상”과 “역대지하”로 바꿨으면 한다.

④ “시편”은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인명’이나 ‘내용’에 근거한 제목이 아니다. ‘문학 유형’에 근거한 것인데, 이 제목은 “시편” 이외에 다른 책들은 ‘시’(詩)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을 ‘인명’에 근거해 책명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편의 거의 절반인 73개의 시가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윗과 관련해서 책명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외에도 솔로몬, 고라, 아삽, 예단, 모세 등이 쓴 시들도 많이 있다. 또한 다윗이 쓴 시로 분류된 시들의 ‘다윗 저작권’ 역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다윗이라는 ‘인명’에 근거한 책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헬라어성경에서 기원한 영어제목 “Psalms”는 ‘악기에 맞춘 노래’라

28) 한편 제목은 이 헬라어 제목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번역 서문을 쓰면서 히브리어성경의 제목을 차용해 역대기를 “거룩한 전(全)역사에 대한 연대기”(Chronikon)라고 불렀다. 참고로 탈군(Targum)의 역대기 첫 구절은 “이것은 계보의 책, 곧 고대시대로부터의 연대기이다.”이다.

29) 참조, 왕대일, 『구약성서이해 열마당』(서울: 새길, 2003), 97-98.

는 뜻이다. “시편”의 시들이 대부분 ‘노래’(미즈모르, מִזְמוֹר)라는 표제어를 지니고 있으므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책명 역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책의 ‘성격’이나 ‘기능’에 치중된 제목이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어성경의 ‘찬양’이라는 뜻의 “트힐림”(תְּהִלִּים; 참고, 시 145편 표제어)이라는 제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편”에는 상당수의 찬양시가 있으므로, ‘내용’에 근거한 제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찬양시가 시편에 다수 있지만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원시는 150개의 시들 중 40%를 상회할 정도로 많다. 따라서 ‘찬양’이라는 뜻만 담은 “트힐림”이라는 다소 제한적 책명보다는 150개의 시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책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책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³⁰⁾ 탄원시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감사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므로 ‘내용’에 적합한 책명으로 볼 수 있다.

⑤ “잠언”은 중국어성경의 제목 “箴言”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 箴(잠)이라는 글자는 ‘경계’(警戒)를 의미하므로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사전에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히브리어성경이나 다른 역본들 역시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와 대동소이한 제목을 택하고 있다. “잠언”은 구약의 책들 중 “지혜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잠언”의 내용이 삶의 지혜에 관한 것이므로 “지혜서”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외경 중 “지혜서”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 한편, 내용을 고려해서, “훈언”(訓言)이나, “교훈서”로 하면 좀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잠언’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꽤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해도 될 듯하다.

⑥ “전도서” 역시 중국어성경의 제목 “傳道書”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길(道)을 전한 책”이라는 뜻이다. 이 제목은 사실 “전도서”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된다.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도서”라는 제목 자체로부터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 또한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노방전도 등의 개념으로 더 흔히 사용되어 책명으로부터 내용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파격적으로 히브리어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하여 “코헬렛”으로 수정하였다. 이 단어는 ‘모으다’, 혹은 ‘집합시키다’는 뜻을 지닌 “카할”(קָהַל)라는 동사의 여성분사형이다. 따라서 코헬렛은 ‘불러 모은 사람’, 혹은 ‘집합시킨 사람’이라

30) 분회퍼는 시편을 가리켜 “성경의 기도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참조, Dietrich Bonhoeffer, *Die Psalmen: Das Gebetbuch der Bibel* (Gießen: Brunnen Verlag GmbH, 2013).

는 뜻이다. 고심 끝에 “코헬렛”이라는 책명을 택했겠지만, 이 책만 예외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하여 책명을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헬라이어성경과 라틴어성경은 “회중 설교자”라는 뜻의 책명을 택하고 있고(Εκκλησιαστής, Ecclesiastes), 제목은 “콘키오나토르”(Concionator)라고 했는데, 이는 ‘회중의 연사’(演士)라는 뜻이다. 이것들 모두 “전도서”에 대한 적합한 제목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기준으로 책명을 정한다면 오히려 “인생론” 혹은 “인생묵상록” 정도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⑦ “아가”는 ‘우아한(雅) 노래(歌)’라는 뜻이다. 이 제목은 “아가”가 어떤 책인지를 잘 드러내 준다. 곧 다른 어떤 노래들보다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는 히브리어성경의 제목인 “쉬르 하쉬림”이나 다른 역본들에서의 제목들이 택하고 있는 뜻인 ‘노래들 중 최고의 노래’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 한자어 제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 책명 역시 ‘내용’을 토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책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한 제목이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이다. 사랑이 ‘시작’됐고, ‘성장’했으며, ‘완성’된 이야기이다. 하나님과 우리도, 또한 우리끼리도 그렇게 하라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이다. 따라서 “아가”라는 책명보다는 “사랑의 노래”로 바꾸었으면 한다.

⑧ “예레미야애가”라는 책명은 우선 예레미야가 이 책의 저자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레미야가 책명에 포함된 것은 칠십인경의 바티칸 사본의 수정자(B^c), 시나이 사본(S), 마르칼리아누스 사본(Q), 베네투스 사본(V)에서 이 책을 “쓰레노이 예레미우”(θηρηνοι Ἰερεμίου; 예레미야의 탄식들)이라고 한 데서 기원한다.³¹⁾ 이 책을 과연 예레미야가 썼는가 하는 저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책만 굳이 저자의 이름을 책명에 밝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밝혀야 한다면, “전도서”도 “솔로몬의 전도서”로, “아가”도 “솔로몬의 아가”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역』의 책명 중 ‘인명’에 근거한 책명 이외에는 어떤 책도 저자를 책명에 밝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역본들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예레미야라는 단어를 책명에서 제외했으면 한다.

한편 “애가”(哀歌)를 풀어쓰면 “슬픔의 노래”이다. 이 제목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현실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레미야를 제목에서 뺀 “애가”로 둘 경우 哀歌가 아니라 愛歌로 오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우리말로 풀어써서 “슬픔의 노래”로 하면 좋을 듯하다. 이 제목은

31)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13.

“아가”를 “사랑의 노래”로 한 것과 짝을 이루는 책명이 되는 효과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제안된 오경 이외의 책명 10권의 책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4> 오경 이외의 책명(10권) 제안

현재	제안 1	제안 2	제안 3
사사기	영웅기	영도자들	
열왕기상	왕조실록상	열왕기(列王紀)상	왕국기 3
열왕기하	왕조실록하	열왕기(列王紀)하	왕국기 4
역대상	역대지상		
역대하	역대지하		
시편	기도와 찬양		
잠언	잠언	훈언	교훈서
전도서	인생론	인생묵상론	
아가	사랑의 노래		
예레미야애가	슬픔의 노래		

3. 새로운 번역 성경의 책명 제안

우리는 지금까지 『개역』의 책명 수정의 필요성과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성경의 책명을 거의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개역』의 책명은 차세대 젊은이들을 고려한 성경이 새로 번역된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책명을 새롭게 재고할 때, 응당 원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괄적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하에 구약성경의 각 권의 책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번역 성경에서 고려해 볼 만한 책명을 제안해 보았다.

하지만 책명을 바꿀 경우 한국교회가 겪을 혼란이 예상되므로 상당 기간 동안 새로운 책명과 예전 책명을 병기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가령, 거룩기 [레위기] 등). 덧붙여, 예언서는 성도들이 읽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예언서 제목 후에 부제목을 달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가령,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 등).

이상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모아 새롭게 제안된 새로운 번역 성경의 책명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제안 순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순서다.

<표 15> 구약의 새로운 책명 제안

현재	구분	제안 1	제안 2	제안 3	
창세기	오경	창세경	창세기		
출애굽기		출이집트경	출이집트기	모세기(상)	
레위기		거룩경	거룩기	모세기(중)	
민수기		광야훈련경	광야훈련기	모세기(하)	
신명기		신(申)명경	신(申)명기	모세설교	
여호수아	역사서	여호수아기			
사사기		영웅기	영도자들		
룻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기(상)	왕국기 1		
사무엘하		사무엘기(하)	왕국기 2		
열왕기상		왕조실록(상)	왕국기 3	열왕기(列王紀)(상)	
열왕기하		왕조실록(하)	왕국기 4	열왕기(列王紀)(하)	
역대상		역대지(상)			
역대하		역대지(하)			
에스라		에스라기(상)	에스라기		
느헤미야		에스라기(하)	느헤미야기		
에스더		에스더기			
욥기		시가서	욥기		교훈서
시편			기도와 찬양		
잠언	잠언		훈언		
전도서	인생론				
아가서	예언서	사랑의 노래			
이사야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슬픔의 노래			
에스겔		에스겔서			
다니엘		다니엘서			
호세아		호세아서			
요엘		요엘서			
아모스		아모스서			
오바댜		오바댜서			
요나	요나서				

미가		미가서	
나훔		나훔서	
하박국		하박국서	
스바냐		스바냐서	
학개		학개서	
스가라		스가라서	
말라기		말라기서	

<주요어>(Keywords)

성경책명, 번역(음역), 한글성서, 중국어성서, 개역성경.

Names of the books of the OT, transliteration, Korean Bible, Chinese Bible, the Revised Korean Version.

(투고 일자: 2014년 1월 10일, 심사 일자: 2014년 3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서울: 바오로딸, 2009.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도한호, “개역한글판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알고 싶습니다”, 『성서한국』 37 (1991), 30-34.
- 민영진, 『國譯聖書研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
-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사”, 한영제 편, 『한국 성서 찬송가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7, 9-56.
-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
- 윌리엄 S. 라솔 외, 『구약개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Boda, Mark J. and Redditt Paul L., eds., *Unity and Disunity in Ezra-Nehemiah: Redaction, Rhetoric, and Reader*, Sheffield: SPP, 2008.
- Bonhoeffer, Dietrich, *Die Psalmen: Das Gebetbuch der Bibel*, Gießen: Brunnen Verlag GmbH, 2013.
- Redditt, Paul L. *Haggai, Zechariah, Malachi*,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95.

<Abstract>

The Names of the Books in the Old Testament Proposed Anew

Prof. Kyung-Jin Min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article intends to propose new names for a few books in the Old Testament of the Korean version. The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have kept the name tradition for more than 100 years since the first publication in 1911. It is high time, however, that the names of the books in the OT be changed in view of their relevancy.

The traditional names have relied heavily upon the Chinese version by doing a thorough transliteration. In doing so, there have been many confusions. For instance, the name 申命記 implies “a repetition of the Torah” in Chinese. But Koreans can scarcely notice the meaning from its transliterated word 신명기.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e first investigate how the Chinese version named the books of the OT, and find that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and ending lacks consistency. Since the names of the books in the Korean version originated from those of the Chinese version, the same problems are shared. It is needed, therefore, to construct a principle for new names of the books in the OT, and a principle is suggested with five notes.

We, then, move on to explore the principle on which books can gain new suitable names, and conclude that giving new names to some books, as suggested on <Table 15> in the text, might be more appropriate.